

『심청전』의 부녀관계와 서사구조

이승수(제1저자)* · 김용선(연결저자)**

〈차 례〉

1. 머리말
2. 모녀관계의 파탄과 부친의 세계
3. 부녀애착의 균열과 심청의 동요
4. 부녀분리의 증상과 이소(離巢)의 풍경
5. 분할된 세계, 부녀의 제 길 가기
6. 딸의 귀환과 부친의 개안-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부녀관계와 서사구조의 유기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심청전』 읽기의 한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세상에 가장 널리 그리고 인상 깊게 알려진 심청의 면모는 ‘효녀’이다. 한국 문화에서 ‘효녀 심청’은 일종의 관용어이다. 『심청전』의 주제를 ‘효’로 간주하는 입장은 20세기 초 이후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관습적 해석으로 고착되어, 실험적이면서 혁신적인 읽기를 방해해왔다. ‘심청 이야기’의 오랜 연원과 방대한 외연을 고려하면, 효행 윤리는 작품에 진하게 덧칠해진 특정 시대의 흔적이자 표징일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이야기가 발 딛고 있는 역사 사실이나, 강변하고 있는 윤리에서 시선을 거두어, 서사구조 자체를 주목하였다. 형식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으며, 표현들은 다 의미를 감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심청전』은 ‘모녀 교체 → 부녀 애착 → 부녀 분리 → 딸의 배우자 탐색, 혼인 → 부친의 안맹(眼盲), 유리(遊離) → 딸의 귀환과 부친의 각성’의 과정, 즉 부녀 관계의 심리적 양태 및 그 흐름을 구현하고 있다. 둘째, 부녀 관계를 구현하는 방식은 서사 구조와 긴밀하게 조직되어 독특한 미적 효과를 창출한다. 독해의 초점을 심청하게 맞추면, 『심청전』은 딸이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을 시도하는 이야기이다. 다만 혼인을 전제로 한(또는 혼인으로 귀결되는)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아버지에게로 귀환하는 걸구(結構)는 남성 중심의 혼인문화가 유지되어 온 시기의 산물일 가능성은 의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문으로 남겨두었다. 독해의 초점을 심학규에게 맞춘다면, 『심청전』은 딸의 탄생과 함께 애착의 방향이 아내에서 딸로 옮겨가고, 딸에 집착하고, 딸의 분리와 혼인에 충격을 받아 심리의 혼란을 겪다가, 궁극에는 딸에 대한 맹목적 환상에서 깨어나는 이야기가 된다. 「내 복에 산다」와의 친연성에 대해서는 가설 차원에서 제기하였다.

[주제어] 부녀 애착, 부녀 분리, 모녀 교체, 엄마의 유언과 유물, 아버지의 심리적 그림자, 딸의 엄마 찾기, 아버지의 개안(開眼)

1. 머리말

본고는 부녀관계와 서사구조의 유기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심청전』 읽기의 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학사에서 『심청전』은 두 가지 도드라진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전승의 국면이다. 『심청전』은 소설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설화에서 판소리에 이르는 매우 넓은 자장 속에서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이후 더 다채롭게 전개되었으며, 지금도 그 외연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청 이야기’의 내포가 여러 시대와 계층을 아우를 만한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 현상을 주목할 경우 ‘심청전’보다는 ‘심청 이야기(서사)’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둘째, 연구의 차원이다. 『심청전』은 각종 이론과 접근법의 경연장이라 할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스펙트럼은 역사·민속학적인 사실 고증의 차원에서 신화 원형 및 정신분석학적 심리 분석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다. 두 특징은 이 작품이 소박하고 단순한 서사 속에 여러 층위에서 인생의 심중한 요소들을 담고 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널리 그리고 강하게 알려진 심청의 면모는 ‘효녀’이다. 한국 문화에서 ‘효녀 심청’은 일종의 관용어이다. 『심청전』의 주제를 ‘효’로 간주하는 입장은 20세기 초 이후 주류를 이루어왔다.¹⁾ 전승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텍스트 내부에서 형성되고 승인된 효라는 주제 영역을 확정해왔다. 윤리의 배경을 따지고, 심청의 효를 부정하

1) 『심청전』의 주제를 ‘효’로 보는 견해는 정하영, 「심청전의 제재적 근원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3)에서, 신호림, 「심청전의 계열과 주제적 변주」(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6)에 이르기까지 견지되어왔으며, 논자 또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 효행의 정당성이나 폭력성을 따지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효’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효행’이라는 윤리의 자장을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서 이루어졌다.²⁾ 일반 독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조차 심청과 『심청전』을 이해함에 있어 ‘효(행)’라는 윤리 덕목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근래에는 최근에는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적이면서 혁신적인 『심청전』 읽기가 시도되고 있다. ‘심청 이야기’의 오랜 연원과 방대한 외연을 고려하면, 효행 윤리는 작품에 진하게 덧칠해진 특정 시대의 흔적이자 표징일 수 있다.

본고는 이야기가 발 딛고 있는 역사 사실이나 강변하고 있는 윤리에서 시선을 거두어, 텍스트 형식이 말하는 것의 해독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첫째, 문학의 본질은 형식에 있으며, 미적 성취도가 높은 작품일수록 조건 및 환경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율적이며 자족적으로 존립하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작품은 하나의 세계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결·결합·조직·작동되는 방식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작가나 사회를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서사의 구조에서 부분은 전체를 산술적으로 구성하는 도구적 일부가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산술적 총합보다 훨씬 더 큰 전체를 만들어내는 작은 전체이다.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해석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진다. 부분들이 지닌 전체성을 주목하면, 부분을 전체의 일부로 간주할 때 숨어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심청전』 서사의 바깥 틀은 심학규의 내력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이로, 안 틀은 심청의 탄생부터 부녀 상봉에 이르는 사이로 짜여있다. 몇몇 인물들이 더 등장하기는 하지만, 『심청전』 서사의 주역은 심청 부녀이다. 서사 형식에 있어 두 사람의 관계 양상과 변화가 『심청전』 서사의 골격이라는 것이 본고의 대전제이다. 여기서 두 가지 가설이 도출되었다. 첫째, 『심청전』은 ‘모녀 교체 → 부녀 애착 → 부녀 분리 → 딸의 배우자 탐색, 혼인 → 부친의 안맹(眼盲), 유리(遊離) → 딸의 귀환과 부친의 각성’의 과정, 즉 부녀 관계의 심리적 양태 및 그 흐름을 구현하고 있다. 둘째, 부녀 관계를 구현하는 방식은 서사 구조와 긴밀하게 조직되어 독특한 미적 효과를 창출한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서사 배면에 숨어 있거나, 상징의 형태로 간간이 나타나

2)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고소설연구』 35, 2013, 65~66쪽.

는데, 그 의미를 간파하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다. 독해의 초점을 심청이나 심학규 한 사람에게 다른 의미가 도출된다. 부녀 관계와 서사 구조 사이의 유기적 직조, 그것이 자아내는 미적 효과를 해명하는 것이 이 논의의 목적이다.

내용이 가장 풍부하며, 판소리와와의 관련성이 높아 넓은 향유층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완판 71장본을 분석의 주 텍스트로 삼았다. 이본의 넓은 편폭을 고려하여 그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관 24장 한남서림본을 보조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지면이 한정되어 『심청전』 연구 현황을 두루 검토하지 못하고, 논의 과정에서 관련되는 성과만을 끌어와 거론하였다.³⁾ 문제 제기 차원에서 「내 복에 산다」 설화와의 관련성을 언급할 것이다. 이 논의로 『심청전』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이 한 치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2. 모녀관계의 파탄과 부친의 세계

서사는 심학규와 곽씨의 부부관계에서 출발한다.⁴⁾ 심학규는 20살 전에 눈이 먼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무능과 무지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안맹(眼盲)은 심학규가 겪는 첫 번째 상실이다. 이를 기점으로 심학규는 거듭 상실을 체험한다. 안맹으로 삶의 모든 가능성을 잃은 심학규에게 끝까지 남은 것은 양반의 후예라는 신분이고, 이 신분에서 비롯한 윤리적 자존감이다. 심학규는 청렴한 행실과 강개한 지조를 지녔기에, 사람들은 그를 군자로 일컫는다. ‘식견·능력의 결핍 / 높은 윤리적 자존감’의 결합에서 심학규의 성격이 빚어지는데, 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능한(또는 허위의) 군자’이다. 『심청전』은 심학규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니, 심학규의 서사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재산·친척·벼슬이 없는 심학규는 독립 생존이 불가능한 인물이다. 심학규의 결핍은 아내인 곽씨에 의해 채워진다. 곽씨는 덕행과 재색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3) 1980년대까지의 연구서는 최운식, 『심청전 연구』(집문당, 1982)와 유영대, 『심청전 연구』(문학아카데미, 1991)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이후의 연구 현황, 특히 이본의 계열과 그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는 신호림, 앞의 논문 참조.

4) 이하 분석은 완판 71장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경관 24장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언급할 것이다.

이재(理財)와 치산(治産)에 있어서도 빠지는 것이 없는 인물이다. 밤낮으로 일을 하여 재물을 모으고, 이 재물을 잘 관리하여 가산을 넉넉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문을 극진하게 공경한다. 그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품위를 유지하는 실질 가장인 셈이다. 심학규와 광씨가 어떻게 혼인했는지는 생략되어 있다. 조건으로 주어졌을 뿐이다. 이는 무능한 남편과 유덕한 아내의 부부관계, 또 이를 통해 유지되었던 가정의 경제와 품위라는 사회 현실의 반영인 동시에, 은연중 그것을 조장하고 정당화했던 장치이다. 『심청전』 서두에 내재된 대전제는 ‘아내의 희생’이며, ‘아내’는 ‘어머니’나 ‘딸’로 전이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심청전』에 전제된 세계는 잉여가 결핍을 채워주고 손실이 수익으로 메워지는, 위태로운 평형과 안정 상태이다. 이러한 일상의 질서에 파탄이 생기면서 서사가 펼쳐지는데, 그 계기는 심학규의 자식 욕망이다. 심학규는 어느 날 진지하게 자식 욕망을 아내에게 토로한다. 자식을 바라는 이유는 조종향화(祖宗香火)와 사후흥향(死後歆饗) 두 가지이다. 심학규가 바라는 자식의 역할은 조상을 섬기는 일이며, 이때 자식은 다분히 수단 또는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남편의 말을 들은 광씨는 물력과 정성을 다하여 초자연적인 존재에 자식을 기원한다. 이 기원에 대한 감응의 결과로 광씨는 임신하게 된다. 심학규의 욕망이 1차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심청전』에서 심학규의 욕망은 교환의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성취의 대가로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다.⁵⁾ 심학규에게 있어 성취는 상실의 등가인데, 이는 그의 무지(無知)이자, 안맹의 다른 표현이다.

광씨 부인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고전소설의 관습적이며 상투적인 설정이기에 심상하게 보이는 이 장면도, 심청의 일생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청이 겪는 첫 번째 모녀 분리이기 때문이다. 서사에서 심청의 어머니는 네 차례 각기 다른 모습으로 - 천계의 어머니인 서왕모, 현세의 어머니인 광씨, 가상의 어머니 장승상 부인, 그리고 용궁에서 만나는 옥진부인 - 등장한다.⁶⁾ 어느 어머니도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모녀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이는 『심청

5) 심청을 얻으며 아내를 잃고, 공양미 삼백 석을 얻는 대신 딸을 잃으며, 뽕덕어미를 얻은 뒤에는 재물을 잃는다.

6) 심청 모친의 등장 양상은 경판본과 가장 차이가 많은 부분이다. 완판본에 설정된 전생의 모친, 장승상 부인, 용궁에서 만나는 옥진부인이 경판본에는 아예 없다. 이러한 차이에는 이유가 있고, 이 차이가 발생시키는 미감은 적지 않을 텐데, 이는 의문으로 남겨둔다.

전』을 읽을 때 세심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심청에게 서왕모는 어머니의 원형이며, 심청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와의 분리라는 심리적 외상을 지녔던 셈이다.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또는 어머니의 상실은 심청의 삶에 운명처럼 작동한다.

곽씨는 딸을 출산하지만, 산후별증으로 이레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곽씨의 죽음은 앞 못 보는 심청규에게도, 갓 태어난 딸에게도 심각한 위기이다. 부녀는 각각 아내 부재와 엄마 부재 상태를 맞이한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딸이 겪는 어머니로부터의, 그것도 두 번째 겪는 분리이다. 딸은 전생에서 서왕모를 떠나왔고, 현재에서는 그 존재를 인지도 하기 전에 엄마를 잃는다. 딸은 엄마 없는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의 밀착이다. 엄마 없는 세상은 아버지의 세상이다. 딸은 엄마가 사라진 상태에서 사유나 선택의 여지없이 아버지와 운명 공동체가 된다. 이는 딸이 아버지 세계의 일부가 됨을, 그 세계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딸은 온전히 ‘아버지만의 딸’이 된 것이다.⁷⁾

하지만 어린 딸에게 어머니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엄마는 이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어린 딸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곽씨는 죽음을 맞이하며 아래와 같이 유언을 남긴다.

① 천형(天幸)으로 이 자식이 죽지 안코 자라나서 제발노 걸거든 압세우고 질을 무러 너 무덤 입푸 차저 와서 네의 죽은 모친 무덤이로다 가르쳐 모녀 상면하면 혼이라도 원이 업겠소, 천명을 어길 길이 업서 압 못 보난 가장의게 어린 자식 댁게 두고 영결(永訣)하고 도라가니 가군(家君)의 귀하신 몸이 잇통하여 상치 말고 천만 보충하옵쇼셔. 차싱의 미진한 인연 다시 만나 이별 말고 살이라. 익고 익고 이겠소, ② 아히 일흠을 심청이라 지여두고, ③ 나 씨던 옥지환이 함 속의 잇스니 심청이 자라거든 날 본다시 너여 주고, ④ 나라의서 상사(賞賜)하신 돈 슈북강영 툇평안락 양 편외의 식긴 돈을 고훈 홍전(紅氈) 괴불 줍치 주홍(朱紅) 당사(唐絲) 별미답의 끈을 다러 두어쓰니 그것도 너여 친여 주오. (띄어쓰기, 한자는 필자, 이하 같음)⁸⁾

7) 가부장제 하에서 아버지와 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유대되어 있다. 개별의 경우와는 상관없이, 지배적인 가부장적 문화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버지의 딸이다. (Maureen Murdock, 신광인역, 『영웅의 딸』(청동거울, 1999), 14쪽/ Marion Woodman의 딸.) 윤인선, 『심청의 우울증』, 『현대정신분석』 12(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0)에서 재인용.

8) 인용문은 梁珍泰 編, 국립도서관소장 木板本 『심청전 上/下』, 多佳書舖, 大正5年(1916). (이하 같음)

곽씨의 유언은 네 가지이다. 첫째, 아이가 살아남거든 앞세워 자기 무덤을 찾아와 달라는 것이다. 모녀의 외적 관계가 없어지지 않고 잠복되는 것임을 의미한다.⁹⁾ 모녀 관계의 회복에 대한 강한 염원과 희망이다. 둘째,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에는 주술적 힘이 있다. 이름은 실체에 붙어 있으며, 실체가 아니면서 실체를 움직이는 힘을 지닌다.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 행위, 명명(命名)과 호명은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의 소산으로, 향하고 규정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곽씨는 이름을 지어준 뒤에는 바로 ‘심청’이라 부르고, 뒷날 용궁에서도 이름을 부르며 딸에게 다가온다. 셋째, 자신이 끼던 옥지환을 주게 한다. 딸을 다시 찾겠다는 강렬한 약속이자 염원의 표현이다. 뒷날 용궁에서 모녀가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는 심청이 옥지환을 끼고 있음을 보고 몹시 반가워한다. 심청에게 있어 옥지환은 어머니의 환유였던 것이다. 넷째, 곱게 장식한 주머니에 담아놓은 돈(화폐)을 주라고 당부한다.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허리춤에) 채여 주라고 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리적 힘이고, 그걸 곱게 장식한 주머니에 넣어 허리에 채여 주라 함은 그 힘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뜻이다.¹⁰⁾ 곽씨는 세심하고 면밀하게 딸에게 말과 물건을 남기는데, 이는 이후 심청이 세상을 살아가고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곽씨가 죽으면서, 자생력이 없는 부녀만 세상에 남겨진다. 심청 부녀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어미가 죽고 부녀(자)가 남겨지는 일은 근대 이전에는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었을 것이다.¹¹⁾ 이는 어느 정도 현실에 근거를 둔 것이고, 심청 부녀의 불행에 대한 공감과 연민은 『심청전』 전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¹²⁾ 늙고 병든(또는 눈먼) 아버지와 어린 딸이 남아 세상의 풍파와 맞서는 설정은 매우 친숙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보편적 문화현상이다. 이는 물

9) 판본이나 창본에 따라서는 심청이 남경 선인을 따라 집을 나서기 전 날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최동현·최혜진, 『교주본 심청가』(민속원, 2005), 151, 266~267쪽; 국립창극단, 『오민아의 심청가 강산제』, 『2019 상반기 국립극장 완창관소리 사설집』, 180~182쪽, 『최호성의 심청가 강산제』(국립극장, 2019), 310~311쪽.

10) 어머니가 죽으며 어린 딸에게 주는 유언과 유물의 의미는, 클라리사 P. 에스테스, 『늙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손영미 옮김(고려원, 1994)의 바살리사 이야기의 분석을 참조할 만하다.

11) 다음은 朴世堂(1629~1703)이 1678년 두 번째 아내를 잃고 지은 『傷悼』 7수 중 네 번째 시이다. “엄마 어디 갔어요, 어린 것이 물기에, 답하러니 나도 물래 눈물 줄줄 흐르네, 세상이 아득하여 방향 잃고 허둥대니, 추위요 배고파요 어디에도 말 못하네. 痴兒問我母何之, 欲答潛然淚自垂. 只爲冥茫迷去向, 教伊無處說寒飢.”(『西溪集』 권 2) 李建昌(1852~1898)이 1886년에 지은 『悼亡』 5수(『明美堂集』 권 4)도 비슷한 사례이다.

12) 이지영, 『연민과 공감의 서사로 본 심청전』, 『고전문학연구』 52(한국고전문학회, 2017), 205~233쪽.

른 특정 시대의 사회 현상과도 관련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를 가족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녀관계에 대한 원형무의식의 발현으로 보는 것도 흥미로운 해석이다.¹³⁾ 심청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자라고, 그 불편한 곳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심청의 세계가 된다. 심청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세계에 속하게 된 것이다.

아가 아가 자는야 아가 아가 웃는야 / 어서 커서 너의 모친갓치 현철(賢哲)호야 /
효행 잇서 아버에게 귀(貴)호물 뵈야라 / 언의 조모(祖母) 잇서 보며 / 언의 외가(外家)
잇서 퉁길 손야!

인용문은 심학규가 딸을 재우며 어르는 말이다. 심청에게는 엄마가 없을 뿐 아니라, 모계(또는 모성)를 의미하는 할머니도 외가도 없다. 외형상 심청은 모성과는 철저히 차단된 세계에 놓이게 된다.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자신의 아내와 같을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너의 어머니와 같이 현철하여, 효행으로 네 존재가 존귀함을 보여다오!”란 발언 내용은, 심학규가 딸에게 기대하는 도덕이며 심청이 아버지에게 배우는 가치이다. 광씨의 죽음은 딸에게 어머니 상실이지만, 남편에게는 ‘아내 → 딸’의 교체일지도 모른다. 아내든 딸이든, 그 관계에서 구심력을 발휘하는 중심은 언제나 ‘그’(夫/父)이다.

3. 부녀애착의 균열과 심청의 동요

무척 험난한 가운데서도 심청은 무사히 자란다. 심청은 저항하거나 의심할 여지없이 아버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부녀의 애착 관계는 매우 공고하게 형성된다. 그러한 표지는 심청이 7살쯤 되면서 뚜렷이 나타난다.

육칠 세라 얼골리 국색(國色)이요 인사가 민첩호고 효행(孝行)이 출천(出天)호고 소

13) 최선의, 『뿌슈킨을 통해 보는 눈먼 아버지와 딸의 관계』, 『러시아문화연구논문집』 8월 0호(한국러시아문화회, 2000), 5~31쪽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작성한 논문이다. 2011년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벨라타르 감독의 영화 『토리노의 딸』도 그러한 설정의 대표 사례이다.

견이 탁월하고 인자하미 기린이라. 부친의 조석 공양과 모친의 제사를 의법(義法)으로 할 줄을 아니 뉘 안이 칭찬(稱讚)하리오!

너 나히 칠팔 세라 싱아육아(生兒育兒) 부모 은덕 이제 봉행 못 하면 일후 불행하신 날의 잇통한들 감사오랴가! 오날부턴 아버지는 집이나 직키시면 너가 나서서 밥을 빌어다가 조석 근심 덜게 하오리다.

위 인용문은 서술자의 말이고, 아래는 심청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다. 서술자의 발화에서 겨우 7살쯤 된 심청의 가녀린 어깨 위에는 무거운 사회적 윤리의 기대치가 지워진다. 때에 맞춰 부친을 공양하고 예법에 따라 모친을 제사지내는 심청의 행동은 ‘효행’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윤리란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학습되고 각인되는 것이다.¹⁴⁾ 그 외부의 힘이란 아버지이며, ‘뉘’로 표현된 사회이다. 아래는 사회적 윤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어린 심청의 마음에 내면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심청은 뒷날 아버지가 죽은 뒤까지를 염두에 두며,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효행’이라는 윤리는 잔인하게 어린 심청을 강압했고, 어떤 보호막도 도피처도 없는 심청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¹⁵⁾

심청의 말에 부친은 웃음으로 받아넘기려 하지만, 심청이 역사 속 효행을 예로 들며 제 뜻을 고집하자, 부친은 마지못해 수락한다. “심봉사 올리 여겨, 기특하디 너 썰이야 효녀로다 너 썰이야 네 말디로 그리 하여라!” 할 수 없이 수락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 심청의 마음과 행동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대된 것이고, 태어난 뒤에는 끊임없이 학습된 것이다. 심학규는 자기 삶을 실현시키는 딸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을 잘 모시는 딸을 기대했고 양육했다. 부친의 수락과 외부(이웃, 사회)의 칭찬 아래, 심청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한다. 부부관계가 부녀관계로 달라지고 딸이 어머니를 대체하면서, 엄마의 열행(烈行)이 딸의 효행(孝行)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행위의 양태가 바뀌었을 뿐 윤리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14) 여기에 대해서는 니체, 김정현 역, 『도덕의 계보』(책세상, 2002) 중 「제2논문: ‘죄’, ‘양심의 가책’ 및 ‘기타’의 3장 참조. 이창재, 『도덕계보학-니체의 생리·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철학』 64(한국철학회, 2000)도 도움이 된다.

15) 이러한 심청을 이동희는 ‘부모화된 아이’로, 윤인선은 ‘여성 오이디푸스’로 보았다. 모두 일리 있는 해석이다. 이동희, 『부모화된 아이를 위한 심청가의 문학치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30(한국구비문학회, 2010); 윤인선, 앞의 논문.

이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심청의 나이 15살이 되었다. 그 사이의 사연은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이유는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는 부녀 애착이 강화되고 공고해진 시간이다. 이 부녀 애착은 심청의 나이 15살이 되면서 굳 열되기 시작한다. 그 계기는 장승상 부인의 등장이다. 이웃 마을의 부인은 원근에 자자한 심청의 소문을 듣고 시비를 보내 그녀를 초대한다. 심청은 부친의 허락을 구하여 장승상 부인 집으로 간다. 그 마을은 정갈하고, 집의 정원은 아름답고 넉넉하다. 이곳을 차례로 지나 중문 안으로 들어서자, 차림이 단정하고 피부가 고우면서 살집이 적당함[肌膚豐盈] 부인이 반갑게 맞이한다. 이 모든 것은 심청이 느껴보지 못한, 넉넉하고 부드러운 모성의 상징으로 읽을 만하다. 부인은 손을 쥐며 심청의 처지를 위로하고, 온갖 따스한 말로 칭찬하더니, 급기야는 수양딸이 되어줄 것을 제안한다. 그간 부재의 상태로 놓여있던 엄마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① 안혼(眼昏)하신 우리 **부친** 조석 공양과 사절 의복 뉘라서 이우릿가! 구홀하신 은덕은 사름마다 잇거니와 지여(至於) 날흔여난 당이별논(當以別論)이라 **부친** 모시옵기를 모친 겸 모시옵고 우리 **부친** 날 밋기를 아달 겸 밋사오니 너가 **부친** 곳 안이시면 이제스지 자라쓰며 너가 만일 업거디면 우리 **부친** 나문 희를 밋칠 기리 업사오며 요조의 사경 서로 의지하여 너 몸이 맛도록 기리 모시려 호옵나니다. ② 말을 맞치미 눈무리 옥면의 젖난 거등은 춘풍세우가 도화의 밋처다가 점점이 썩러지난 듯 하니, 부인도 쏘흔 긍척(矜慟)하야 등을 어로만지시기 가라사디, 효녀로다 네 말리여 응당 그러홀 듯하다. 노혼(老昏)흔 너의 말리 미쳐 싱각지 못흐였다.

인용문에서 ①은 심청이 완곡하게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이고, ②는 그 뒤의 심청의 정상(情狀)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심청이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 심청은 ‘부친’이라는 단어를 거듭 네 번이나 사용하여 그 뜻을 표현한다. 심청에게 있어 부친은 심청의 행동은 물론 내면 깊은 곳까지를 지배하는 대타자이다.¹⁶⁾ 말을 마친 심청은 눈물을 흘린다. 아기 적 배가 고파 울었던 것

16) 완관 71장본 『심청전』에는 ‘부친’이 64회, ‘아버지’(아버, 이부님) 25회, ‘아버’ 10회, 가장(家長) 5회 등, ‘부친’의 범주에 드는 단어가 10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심청의 입에서 발화된 것이다. 이는 부친이 얼마나 심청의 심리를 지배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외에, 심청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서도 고개를 가웃거리거나 행동을 머뭇댄 적도 없다. 심청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굳은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린 것은 신념에 눌러있던 감성의 작동, 의심해본 적 없는 신념의 동요를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움이고,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성에서 받은 감동이다. 부인은 흔들리는 심청의 등을 어루만져준다. 심청으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손길이다. 이 따스함에 이끌려 심청은 귀가 시간을 놓치고 만다.

심청이 15세가 되었음은 혼인 적령기에 이르렀음을,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탐색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복희와 윤인선은 이 ‘15세’라는 나이를 서사의 주요 출발점으로 보았다. 15살은 혼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탐색할 시기인데, 아버지와의 애착이 혼인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¹⁷⁾ 타당한 해석이다.¹⁸⁾ 이러한 시점에 장승상 부인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인은 심청의 엄마 역할을 자처한다. 그가 속한 세계는 풍요롭고 정갈하며, 심청을 대하는 손길과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스하다. 부인은 서왕모와 곽씨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난 어머니이다. 서사 표면으로는 부인이 심청을 불렀지만, 이면을 따지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심청이 내면 깊은 곳에 잠복해 있던 어머니를 불러낸 것이다. 15살 심청은 ‘의무와 책임만 있는 아버지의 가난한 집’에서, ‘위로와 공감에 넘치는 어머니의 따스한 집’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이동에서 발생한 눈물은 공고했던 부녀 애착에 틈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청이 장승상 부인 댁에 머물고 있는 동안, 부녀의 시간은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 어머니를 만난 딸의 시간은 춘풍화우의 봄날이고, 딸을 잃은 부친의 시간은 엄동설한 겨울로 접어든다.¹⁹⁾ 심청은 장승상 부인의 환대에 자기를 애타게 기다릴 아버지의 존재를 잠시 잊었으며, 이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²⁰⁾ 반대로 아버지는 딸의

17) 김복희, 『심청전의 신화비평적 연구(2) - 부녀분리를 통한 세속적 효의 극복과 자아실현의 주제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4(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1981), 150쪽;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 바다 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화비교연구』 30(세계문화비교학회, 2010), 29~51쪽. 이보다 앞서 설중환도 15살이라는 나이에 주목한 적이 있다. 『고대 소설 여주인공들의 연령 : 15세 전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87(국어국문학회, 1982).

18) 통계 수치가 필요하겠지만, 고전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혼인 나이는 15, 6살이 가장 많다. 이는 현실의 반영이라기 보단 『儀禮』와 『禮記』에서 여성의笄禮 나이를 15살로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 심봉사의 계절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적의 심봉사 홀노 안져 심청을 지달일 제 비공과 등의 붓고 방은 추위 띄이 썰여지고, … 풍설의 가난 사물 보고 짓난 기 소리의 … 무단홀사 썰러진 엽창의 와 풍설 석겨 부드치니 ….”

20) 심청은 집에 돌아와, 탄식하는 아버지에게 “승상되 노부인이 구지 잡고 말유(挽留)하어 어언간(於馬間)의 더의었소.”라고 변명한다.

부제를 체감하며 불안에 떨다가 개울에 빠지고 만다. 순간적이거나 모녀 유대가 회복되는 바로 그 시간에 부녀 애착에는 심각한 금이 간다. 장승상 부인은 심청의 내면에 잠재하는 모성의 표상이며, 그의 등장은 심청 삶의 일대 전환이 시작되는 표지가 된다.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도 장승상 부인의 등장은 필요한 사건이다. 심청을 인당수로 보내기 위해서는 남경 선인에게 팔려야 하고, 남경 선인에게 팔리기 위해서는 부친이 공양미 약속을 해야 하며, 공양미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 빠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심청이 저물녘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배치만으로 내용의 필연성까지 담아낸 것이다.²¹⁾

잠깐 동안 공감·위로의 어머니 세상을 체험한 심청은 의무·책임의 아버지로 복귀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공양미 삼백석이라는 짐을 더 얹어 주었다.²²⁾ 딸은 늘 그랬듯 의연하고 대범하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과감하게 남경 선인에게 자기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에 보냈다. 하지만 심청의 내면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곰곰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으로 날을 보낸다. 팔러가기 전날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며 한숨을 쉬었고, 그러다가 간장으로부터 솟아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내면에 굳게 부착되어 있던 신념·윤리가 녹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데서 극도의 고독감이 드러난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무지와 무능으로 또 물색없는 욕망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심청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절대세계 아버지와 유대가 풀려가고 있는 것이다.

4. 부녀분리의 증상과 이소(離巢)의 풍경

장승상 부인은 심청을 보내면서 이후로 모녀간 의를 두고 살자고 제안한다. 심청

21) '장승상 부인 대목' 관련 선행 연구는 박인해(2018)의 검토를 따라 ① 신분상승의 일환, ② 효성 극대화 및 공인 기능, ③ 제도 반영을 통한 현실성 강화와 단계적 확장' 정도로 정리된다. 유영대(1994)의 주장은 ①에 해당하며 김종철(2013)은 ②와 ③에 비중을 두고 있다.

22) 윤인선(2010)은 심학규의 공양미 시주 약속을 딸을 버리는 행위로 보았다.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상태에 고착되어 있었던 심청은 버림받은 것을 깨달으며, 그의 희생효행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버리는 행위이며,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은 감격하며 그 뜻을 받아들인다. 불완전하게나마 심청에게 어머니가 생긴 것이다.²³⁾ 부인의 등장은 심청의 삶에서 잊힌 어머니 기억의 회복이고, 무의식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모성의 출현이다. 이는 심청의 내면에 적지 않은 파동을 일으킨다. 여기에 부친의 공양미 약속은 내면에 격랑을 일으키는 바람 역할을 한다. 불완전하며 가상이긴 하지만 공감·연민의 모녀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의무·책임의 부녀관계는 흔들린다. 심청은 의연하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만, 내면에서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연민이 격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승상 댁에 수양딸 가는 조건으로 공양미를 마련했다는 심청의 거짓말은 심청의 내면에서 모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완곡한 표현이다.

무삼 험흔 팔자로서 초칠 일 안의 **모친** 죽고 부친조차 이별하니 이런 일도 잇실가
 … 도라가신 우리 **모친** 황천으로 가 겨시고 나는 이제 죽거든 수궁으로 갈 거시니
 수궁의셔 황천 가기 몇 말 니 몇 철 니나 되딘고 **모녀** 상면하랴 혼들 **모친**이 나를
 엇지 알며 너가 엇지 **모친**을 알이! 만일 못고 무러 차쳐가서 **모녀** 상면하는 날의 응당
 부친 소식을 무르실 거시니 무삼 말삼으로 덕답하리!

행선을 하루 앞둔 3월 14일 밤 심청은 탄식한다. 이 대목에는 ‘모친’이란 단어가 여섯 차례나 등장한다. 심청은 기억도 못하는 모친의 죽음을 상기하고, 약속된 바 없는 모친과의 상면을 기대한다. 오랜 동안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 억압되어 있던 ‘모친’이 되살아난 것이다. 장승상 부인과의 만남은 새삼 모친의 존재를 불러일으켰고, 아버지의 행태는 모친과의 만남을 상상하게 했다. 모친은 여기(도화동 부친 집)의 저편 어딘가(무릉촌, 수궁)에 있다. 심청은 그곳(무릉촌)을 다녀온 뒤, 또 다른 그곳(수궁)으로의 여행을 준비한다. 그것은 여기와의 결별을 전제로 한다. 이제 심청에게 있어 두 세계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보름을 하루 앞둔 날의 ‘달밤’ 또한 모성의 세계를 거드는 역할을 한다.

23) ‘이중의 어머니 모티프(The motif of the dual mother)’는 어머니·아내에 의한 재탄생 과정을 겪으며 두 어머니를 갖는 영웅의 출생과 관련있다. 버려지며 양도되는-어머니의 죽음, 이별-과정은 영웅신화의 주제로 첫 번째 출생으로 영웅은 인간이 되며, 두 번째 출생은 불멸의 반신(半神)적 존재가 된다. C.G.윙·한국응연구원C.G.윙 저작 번역위원회, 『윙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솔출판사, 2006), 255~258쪽.

부녀의 거리는 부친의 꿈에 대한 해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애초 심청은 자신이 팔려가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그것은 자기 선택의 윤리적 보루였고, 부친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러한 결심은 마지막 밥을 차려 올리는 상황에서 깨진다. 부친은 딸이 차려주는 좋은 반찬에 **철 없이**²⁴⁾ 좋아하고, 딸이 큰 수레를 타고 가는 꿈을 길몽이라며 기뻐한다. 외적 유대와 달리 부녀 사이의 거리는 이미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이 거리에 절망한 심청은, 끝내 숨기고 있던 사실을 털어놓는다. 부친은 자신의 욕망이 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고통스러워한다. 선인들에게 분노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한다. 하지만 심청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심청의 마지막 이별의 말, “이도 쏘흔 천명이오니 **후회흔 들** 잊지 흐오리닛가!”에서 ‘후회흔 들’의 주어를 부친으로 보아, 심청의 원망을 읽어 내기도 하였다.²⁵⁾

심청은 장승상 부인과 시를 주고받은 뒤 헤어진다. 세 번째 겪는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이다. 부친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한다.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 분리를 이끌어낸 것은 장승상 부인 집으로의 이동이다. 심청은 떠나 가며 비처럼 눈물을 흘리고, 목 놓아 통곡한다. 열다섯 살이 되도록 쌓여온 만단정회가 일거에 폭발한 것이다. 심청은 이제 감정 표현에 거침이 없다. 함께 바느질하고 그네 타던 이웃집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과는 사뭇 다른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한다.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걸음마다 돌아보고 눈물짓기를 반복하면서도 앞으로 향해 간다. 과거와의 결별이다. 강 머리에서 선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심청을 태워 닻을 감고 돛을 달아 배를 저어 떠나간다. 이 강은 차안과 피안을 나누는 경계이다. 공간의 이동은 심청의 월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심청을 태운 배가 강물 위를 떠다니는 대목이 판소리 『심청가』의 ‘범피중류(泛彼中流)’이다. ‘범피중류’란 말은 『시경』 속 두 편 시 『백주(栢舟)』의 “泛彼栢舟, 亦泛其流.”(『패풍(滸風)』)와 “泛彼栢舟, 在彼中河.”(『용풍(鄘風)』)에서 기원한다. 부송 사마

24) ‘철없음’은 심학규의 인물 특성 중 하나이다. 그는 딸이 장승상 부인 집에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는 말에도 ‘물식 없이’ 반긴다. 이는 안맹한 심학규의 조건이면서, 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동인이다.

25) 윤인선(2010), 이동희(2010) 외에도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문학치료연구』 37(한국문학치료학회, 2015)에도 그런 해석이 보인다.

광의 시에 똑같은 구절이 있다.²⁶⁾ 모두 둘 곳 없는 마음을 떠다니는 배로 비유한 것이다. ‘범피중류’는 대개 판소리 연구 층위에서 조명되었다.²⁷⁾ 『심청전』의 이 대목은 『심청가』의 그것보다 분량이 더 많으며, 서사미학의 차원에서 특별한 효과를 지어낸다. 판소리의 특징은 소설에도 구현되었는데,²⁸⁾ 서사의 합리성에 있어 이 대목은 한마디로 영터리이다. 심청을 태운 배는 4,5개월 동안 강 위를 떠다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심청이 떠난 황주(黃州)의 위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노정은 4,5개월 떠돌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며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그 과정은 주로 중국 시인들의 시 인용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지역은 대개 장강(長江) 일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서사 미학적 효과와 의의는 무엇인가?

인용된 시와 이야기의 배경은 모두 물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나, 심청에게 나타나 말을 거는 사람은 모두 억울하게 물로 쫓겨나거나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이다. (賈誼, 屈原, 二妃, 伍子胥) 인용된 시의 정조는 유리(遊離)·가난·망국·객수(客愁)·노쇠·죽음·허무 등이다. 이들 단어들의 특성을 간추리면 ‘상살’이다. 시간 배경은 많은 경우가 가을이다. 이 노래들은 지리 관계의 정합성 여부와 상관없이, 심청의 죽음을 유예시키는 장치이며, 심청 죽음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과정이다. 이주 천천히 이 대목이 지속되는 동안²⁹⁾ 독자들은 심청의 비극 앞에 머물러야 하고, 심청과 함께 죽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독자들은 숨죽여 기다리면서 그 장면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한편으로 초조하게 그 흐름에 자신의 삶을 태운다. 심청이 아버지를 떠나 인당수로, 삶에서 죽음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가는 과정은 『심청전』에서 가장 장엄한 의례이다. 인용된 시와 이야기들은 이 의례의 거룩함을 돋궂주는 연주이면서 장식인 셈이다. 역사의 인물들과 시 안의 사연들은 심청의 처지와 상조공명(相照共鳴)한다. 독자들은 의례를 구경하는 관객이면서, 이쁨과 설움을 나누는 배우이다. 이들

26) 『杻柏寄傳欽之』其 1. “洋洋者騰，泛彼中流，於渚於洲。思其可思，知其可知。其逝勿追，其來勿期。”

27) 이 대목의 형성과 변모에 대해서는 박일용, 『심청가 강상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 연구』 8(판소리학회, 1997); 김상훈, 『심청가 ‘범피중류’ 대목의 형성과 갈래 간 교섭 및 작품변모사적 의미』, 『판소리연구』 36(판소리학회, 2013) 참조.

28) 경관본에는 이 범피중류 대목이 아예 설정되지 않았다. 집을 떠난 심청은 어떤 과정이나 유예 없이 곧장 인당소에 도착한다.

29) 거의 모든 유파의 판소리에서 이 대목은 진양조, 가장 느린 가락으로 불러진다. 이 가락에는 이 대목의 서사적 의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는 슬픔의 강물을 함께 떠다니는 것이다. 참고로 동원된 시들의 목록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작가	작품 제목	시공간 인물	주제와 정서
1	錢起	省試湘靈鼓瑟	湘水, 二妃	애도
2	閔胄顯	落花巖	낙화암, 백마강	궁녀들의 죽음, 비애
3	崔顥	黃鶴樓	長江, 黃鶴樓(武漢)	人去不返空留地, 시름
4	李白	登金陵鳳凰台	長江, 鳳凰臺(南京)	人去不返空留地, 시름
5	蘇軾	赤壁賦	長江 赤壁 가을	人去不返空留地, 시름
6	張繼	楓橋夜泊	吳淞江(蘇州), 가을	客愁
7	杜牧	泊秦淮	秦淮水(南京)	망국, 아이러니
8	杜甫	登岳陽樓	洞庭湖 岳陽樓	遊離, 病苦, 客愁
9	李白	遠別離	湘水, 二妃	別離
10	屈原	離騷	가을	버려짐, 소외감
11	金麟厚	七夕賦	은하수, 가을	긴 이별
12	王勃	滕王閣序	贛江 滕王閣, 가을	人去不返空留地, 허무
13	杜甫	登高	長江三峽 일대, 가을	가난, 노쇠
14	무명씨	江岸橋濃片片黃, 蘆花風飛點點雪	강가, 가을	
15	李白	陪族叔刑部侍郎曄及中書賈舍人至遊洞庭	洞庭湖, 二妃	애도

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굳이 이처럼 지리 정확이 맞지 않는 시들을 대거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상으로서의 이유는 간단하다. 판소리의 영향 때문이다. 판소리 사설은 갈래 특성상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장면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징이 완판본 소설에 유입된 것이다. 완판본 『심청전』과 판소리 『심청가』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자세하게 밝혀져 있어 재론하지 않는다. 심청을 태운 배는 장강 일대를 4, 5개월이나 떠다니다가 인당수에 이른다. 인당수가 백령도 앞 바다라면,³⁰⁾ 항로 등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된다. 근대 소설의 리얼리티 관점에서

30) 사실 고종의 차원에서 이 인당(단)수가 백령도 앞 바다라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최운식, 『심청전의 배경이 된 곳』, 『반교어문연구』 11(반교어문학회, 2000); 송화섭, 『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심청전』에는 여러 결합이 있는데, 이는 반대로 고유한 미학적 특질로 해석되기도 한다.

완만하게 진행되던 서사는 인당수에 이르러 급 가속된다. 광풍에 파도가 치는 광경의 묘사, 제사를 지내면서 계속 울리는 북소리, 그리고 선원들의 다급한 재촉 등이 그런 속도감을 조장한다. 인당수 투신은 서사의 절정이다. 그것은 유장하고 화려한 의례 또는 잔치의 결말이다. 이승, 과거, 관습과 속박, 미망과 불행, 관계와 애증, 이 모든 것들과의 결별이다. 심청의 투신은 순간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투신 뒤 바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온해진다. 들끓던 바다는 심청의 걱정과 번민이고, 잔잔해진 바다는 그것이 사라진 내면에 조응된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바다만 잔잔해졌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태도도 천연덕스럽다. 간곡하던 서도 요란스럽게 바다를 향해 기도하던 선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씩 피운 뒤 행선을 시작한다. 아래 예문은 화려한 의례 끝의 적막과 허무를 잘 보여준다. 각성과 재생은 종종 버리고 비우는 행위에서 시작된다.³¹⁾

식난 날 정신갖치 물결은 잔잔하고 광풍은 식어지며 안기 자욱하야 가는 구름 머물
 녀고 청천의 푸린 안기 식로 난 날 동방처름 일기 명낭하더라. … 좌중이 일십이라
 고사를 파하고, 술 혼 잔식 먹고 담뱃 혼 디식 먹고 형선흡식, 어 그리 흡식. … 순식간
 의 남경으로 득달하니라.

5. 분할된 세계, 부녀의 제 길 가기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면서 부녀를 단단하게 결속했던 끈은 끊어지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세계와 딸의 세계가 분할된 것이다. 아버지와 의 애착이 깨치면서 분리를 겪고 배우자를 찾은 뒤 다시 아버지와 만난다는 구조 면에서, 『심청전』은 「내 복에 산다」 설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³²⁾ 막내딸

고찰], 『역사민속학』 25(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31) 심청의 투신을, 사회적·윤리적 타살인 희생제의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관점에서는 매우 유효한 해석이라고 본다.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외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10(실천민속학회, 2007);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고전한문학회, 2010).

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쫓겨나는 설화와는 달리, 심청은 효행의 실천으로 아버지를 떠난다. 과정과 이유는 다르지만, 그것은 조건과 목적에 따른 변이의 양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두 세계가 나뉘며, 심청의 떠남에도 ‘쫓겨남’의 성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설화의 셋째 딸에 비해 심청은 훨씬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³³⁾ 그것이야말로 『심청전』에 반영된 시대의 윤리적 요구이다. 심청이 옥황상제의 엄명에 **의해** 용궁으로 안내되고, 옥황상제의 **뜻에 따라** 혼인을 위해 지상으로 보내지고, 꽃 속에 있다가 황제에게 발견**되어** 혼인하는 것은 모두 심청에게 덧씌워진 수동적 형상이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질 때, 지상에서 이 사실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유일한 인물은 장승상 부인이다. 헤어질 때 심청이 지어준 시 죽자가 겁어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에 부인은 심청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그날 밤 삼경에 부인은 강에 나아가 심청의 넋을 불러 위로하며 통곡한다. 그러자 또 밝은 기운이 뱃머리에 어렸다가 사라졌고, 심청을 위해 따를 술이 없어지는 신이한 일이 발생한다. 이는 부인과 심청의 마음이 매우 강렬하게 서로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모녀상감(母女相感)의 징표가 심청이 떠나던 날 수작한 시와 부인의 제문이라는 장치로 드러나는데, 이는 시문(詩文)을 생사 간 교감의 주요 통로로 여겼던 남성 사대부의 문화적 기대치가 투영된 것이다.

수궁으로 안내된 심청은 어머니와 상면한다. 죽어 선계 광한전 옥진부인이 된 괄씨가 상제의 허락을 받아 심청을 찾아온 것이다. 모녀 상면 시 옥진부인이 처음 한 말은 딸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내 딸 심청아!”) 현세에서 죽어가면서 직접 지어준 그 이름이다. 이름을 부른 뒤에는 얼굴을 대어보고 수족을 만져본다. 괄씨가 죽기 직전 잡아당겨 문지르던 그 낫이다. 세 번째로 한 행동은 죽으면서 물려준 옥지환과 돈주머니(홍전괴불춤치)의 확인이다. 심청은 과연 옥지환을 끼고 괴불춤치를 차고 있다. 상징(이름), 육체, 사물의 세 차원에서 모녀의 합일성이 증명된 것이다. 심청이 어머니와 다시 만난 곳을 ‘어머니의 바다’라고 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다.³⁴⁾

32) ‘부녀 관계의 서사 구조’를 주목할 때, 『심청전』은 「내 복에 산다」 설화의 소설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 가설의 수준인데, 추후 입증해보고자 한다.

33) 이는 「내 복에 산다」 설화의 셋째 딸이, 무왕과 온달 이야기에서 남성 인물의 성공을 도와주는 선화공주나 평강공주로 그 위상과 역할이 조절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미화, 「공주의 기출’형 서사의 형성과 의미」(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4) 참조.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심청이 ‘어머니의 딸’임을 확인해주었고, 이윽고 다시 떠나간다. 심청이 겪는 어머니로부터의 네 번째 분리이다. 심청은 다시 어머니를 만나지 않는다. 대신 어머니의 딸로 살아가기 시작한다.³⁵⁾

한편 부친도 심청이 떠난 뒤 딸을 기억하며 슬퍼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모녀 교감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간 뒤, 도화동 사람들은 그 효행을 칭송하는 시를 새긴 타루비(墮淚碑)를 세워 심청을 기렸다. 비석을 세우는 행위가 지닌 권위와 공식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시의 일부인 ‘살신성효(殺身成孝)’라는 구절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신체를 훼손하여 윤리[忠孝烈]를 이루라는 요구,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 차원의 칭송과 기념은, 매우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18,9세기 조선에서 성행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부친의 딸 생각은 “심봉사난 쫓 곳 싱각 나면 그 비을 안고 울더라.”가 전부이다. 간략하고 형식적이며 일방적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동네 사람들의 관리 덕분에 심학규의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 이에 욕심을 낸 뽕떡어미를 첩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경위 곡절이야 어쨌든 부친도 딸로부터 독립하여 별 탈 없이 새 인생을 출발한 것이다.

심청의 이후 삶은 혼인으로 가는 행보이다. 옥황상제는 혼연(婚緣)이 가까우니 심청을 지상으로 내보내라 명하고, 사해용왕은 심청을 큰 꽃에 넣어 치송한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을 때, 옥황상제는 용왕에게 3년을 대접[供饋]하고 단장하여 환송하려고 명했는데, 과연 3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기술되지 않았다.³⁶⁾ 심청을 감싼 꽃은 인당수에 떠오르고, 이 꽃은 다시 남경 선인들에게 발견된다. 도선주는 꽃을 황제에게 진상한다. 이를 보면 심청의 인생행로에 있어 선인들의 역할이 자못 크다. 꽃은 황제의 정원으로 들여지고, 심청은 황제에게 발견되며, 끝내는 황후가 된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가 혼인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세상 많은 일에 있어, 현상의 선후 관계는 인과 관계와 거꾸로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황후가 되는 설정은

34)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 바다 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학비교연구』 30(세계문학비교학회, 2010).

35) 경판본의 용궁 대목에서 심청은 전생의 부친이었던 초간왕(용왕)과 만난다.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 부녀 재상봉을 즐겨워하다가 지상으로 보내진다. 이 차이의 의미 또한 논구할 만하다.

36) 3년이 흘렀다면 심청의 나이는 18살이 된다. 심청은 황제와 혼인한 뒤에도 두어 해[年]를 보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시간을 더하면 부친과 만날 때 심청의 나이는 20,1살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황후가 된 지 年이 지나 심청이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에서는 ‘이별 3년’이라고 했다. 이에 의거하면 부녀 상봉 시의 나이는 18살이 된다.

소설 시대의 상상이며 반영이다.

부리 이후 심청의 행보가 싱거울 정도로 순조로운 것에 반해, 부친은 꽤나 격변을 겪는다. 부친은 뽕덕어미의 낭비로 가세가 기울자 유리(遊離)하게 된다. 맹인잔치 소식을 듣고 황성으로 가던 도중, 반맹인 황봉사와 눈이 맞은 뽕덕어미가 달아난다. 어느 때처럼 울며 원망하던 심학규는 문득 울음을 멈추고 눈앞에 없는 상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댄다. 일종의 악다구니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이다. 혼자 길을 떠나다가 날이 더워 내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만 누가 옷을 가져가 버린다. 심학규는 눈과 아내와 딸에 이어, 재물과 뽕덕어미와 옷가지를 잇달아 잃는다. 심학규의 삶은 상실의 연속이다. 마지막에 잃어버린 의관행장은 심학규가 두르고 있던 온갖 체면, 또는 그의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품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것이다. 체면과 품위 일체를 잃어버린 심학규는 세상에 알몸인 채 홀로 남겨진다.

그에게는 기뻐만한 것이 모두 사라졌다. 딸이 인당수에 빠져 죽은 것처럼, 부친도 물에 들어가 죽음을 체험한다. 딸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며 일체의 과거와 결별했던 것처럼, 부친도 과거 일체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딸이 인당수에서 다시 살아온 것처럼, 부친도 알몸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비로소 맨몸으로 세상과 드잡이할 배짱이 생긴 것이다. 그는 무릉 태수 행차를 만나,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 태수가 원정(原情)을 지어 올리라고 하자, 배워 한 번도 써먹지 못한 문장 솜씨를 발휘하여 태수의 마음을 움직인다. 옷과 신발을 얻고도 모자라 담배까지 얻어낸다. 이는 서사 전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어서만 살아왔던 심학규가 자기 힘으로 거둔 첫 성취이다.

이로부터 심학규의 행보는 거침이 없고, 서사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진다. 그 다음에 당도한 곳에서는 녹음방초 우거진 봄 풍경이 묘사되더니 새타령이 인용된다. 노래의 가락이 자못 경쾌하다. 이어서 목동들의 목동가가 장황하게 펼쳐진다. 목동들은 심맹인을 희롱하지만 거기엔 악의가 들어있지 않아, 즐기며 함께 노니는 뜻이 가득하다. 의관을 잃었을 때만 해도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던 심학규는 목동들의 희롱을 선선히 받아들인다. 분위기는 방아타령 대목에 이르러 한껏 고조된다. 아낙들이 모여 있다가 방아를 찧어달라고 요청하자, 심학규는 희롱 섞인 수작을 하며 외설의 비유가 짙은 방아타령을 걸쭉하게 불러댄다. 신분이나 내력으로 보아, 심학규와 방아타령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한 심학규

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서사 흐름을 고조시키는 조흥(助興) 장치이다.

삶의 태도가 바뀌자 뜻하지 않은 행운도 찾아온다. 황성에 들어서 안씨 맹인을 만나 새 연분을 맺는 것이다. 안씨는 살림도 넉넉한데다 젊으며 총명하기까지 하다. 독자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행운은 느닷없이 다가오는데, 이는 소설에서 다 가서지 않은 설화적 면모이다. 심학규는 이제 달아난 뺑덕어미, 도둑맞은 의관행장은 물론, 오래 전 죽은 곽씨부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팔려간 지 3년 밖에 안 된 심청까지도 잊어버린 듯하다. 딸은 여전히 애타게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그 힘에 이끌려 딸에게 다가가는 부친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6. 딸의 귀환과 부친의 개안-결론을 대신하여

심청은 혼인을 하고 황후가 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정체를 밝히지 않으니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심청의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떠나지 않는다. 심청이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찾기를 시도한 것은 몇 해가 지나서였다. 그 사이 해마다 풍년이 들어 나라는 태평했다. 자신의 처지가 안정되고 세상이 태평해지자 심청은 자신의 정체와 내력을 털어놓는다. 부친이 고향을 떠난 것을 알게 되자 맹인 잔치를 부탁하는데, 그 효과를 애민구휼과 국가화평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맹인잔치의 의의는 황후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황제의 지공무사한 통치행위로 격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연구자들은 심청의 성숙을 읽어낸다. 심청은 때를 살필 줄 알 만큼 신중해졌고, 개인의 욕망 실현을 천하의 공도 구현의 일부로 감출만큼 지혜로워졌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는 혼인의 문제이다. 심청은 아버지를 떠난 뒤 혼인을 한다는 점에서, 『심청전』은 혼인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몇몇 연구자는 이 혼인담 구조에 주목하여, 아버지와의 애착을 혼사장으로, 혼인을 여성으로 거듭나기로 해석했다.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딸은 아버지의 세계에 종속된다. 곽씨의 죽음은 심청을 온전히 아버지 세계에 귀속시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자, 설화 속 어머니 부재 상황의 변용이다.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던 딸은 15살이 되면서 독립을 시도하는데, 이 시도는 혼인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딸의 혼인은 ‘아버지로부터

터의 분리' → '배우자와의 통합'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딸의 혼인은 과연 아버지로 부터의 독립을 위해 불가결한 것인가, 혼인이 아니면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는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화든 소설이든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 '배우자와의 통합' 구조는, 그 이야기들 모두 남성 중심의 혼인문화가 유지되던 시대의 산물임을 반증하는 표지인 셈이다. 그러한 문화 이전의 먼 옛날, 또는 먼 뒷날의 이야기는 다른 구조를 지녔고 지니게 될 것이다. 이는 심청 이야기가 『심청전』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최근 그러한 작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딸의 귀환이다. 설화에서 배우자를 얻은 딸은 집으로 돌아오고, 딸이 떠나면서 무너졌던 아버지 세계의 질서와 안정이 회복된다. 복의 원천이 아버지가 아닌 딸에게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아버지의 개안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자 힘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착각에서 깨어난 것이고, 딸에게는 독립된 그의 인생이 있음을 새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심청은 혼인한 뒤에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그리워한다. 아버지로의 귀환은 물리적인 귀가가 아닌 맹인잔치에서의 상봉으로 구현된다. 양태는 다르지만 딸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딸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녀가 다시 만난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심청과 만나면서 철저히 붕괴되었던 심학규의 질서와 안정은 원래의 그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된다.

딸은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가? 혼인을 하여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필연인가? 심학규는 거의 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심청은 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딸은 아버지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딸의 선택과 복은 인정해도, 큰 틀에서는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근원적으로는 심리(무의식, 아버지를 향한 애착)의 문제이고, 가까이는 도덕과 제도의 영향으로 더 강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딸의 귀환은 다른 차원의 아버지 찾기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몽매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재부와 행복의 원천은 온전히 자기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여행이다. 아버지 세계에 종속되어 있던 딸과,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딸은, 외형상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귀환한 딸은 두 번의 부정(否定)을 거쳐 실존적으로 아버지를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³⁷⁾ 심청은 원초적 힘에 이끌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가, 아니

37) 이는 “① 山是山, ② 山不是山, ③ 山是山”의 세 명제에서 ①과 ③은 형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것에 상응한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출가 전의 원효와 입당구법을 포기하고 돌아온 원효는 모두 시정을

면 자기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다시 찾는가, 아버지를 다시는 찾지 않는 심청이 등장할 것인가? 어느 가설이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³⁸⁾

마지막으로 딸의 서사가 아닌 아버지의 이야기로 『심청전』을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소한 아버지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딸은 철저한 보호의 대상이었다. 딸은 태어나면서 아빠의 연인이 된다. 아빠는 새로 출현한 순수하고 연약한 연인 앞에서 긴장하고 떨리고 두려움에 쫓는다. 더 강하게 다짐하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갖는다. 사회에서 여성의 수동적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다짐과 책임감은 심리적 애착으로 굳어진다. 이 과도한 애착은, 딸의 유년기에 부녀를 특별한 관계로 묶어놓는다. 과도한 통제와 구속으로, 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탈취하여, 딸이 불행에 빠질 위험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를 윤리의 범주 속에 넣어 정당화한다. 아버지는 가상 속 딸의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품고, 딸의 주체적 분리를 용서하지 못한 채 심리의 황무지에서 방황한다.

『심청전』은 제목과 달리, 심학규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그의 종말에 대한 서술로 끝나며, 서사 내에서 부친의 위상과 비중은 딸에 비해 적지 않다. 이는 『심청전』이 심학규의 이야기로 읽히고 재창작되는 이유이다. 독해의 초점을 심학규에게 맞춘다면, 『심청전』은 딸의 탄생과 함께 애착의 방향이 아내에서 딸로 옮겨가고, 딸에 집착하고, 딸의 분리와 혼인에 충격을 받아 심리의 혼란을 겪다가, 궁극에는 딸에 대한 맹목적 환상에서 깨어나는 이야기가 된다. 부친은 더 많은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런 아버지들이 존재한다. 본고는 『심청전』은 여러 가족 관계 중에서 부녀관계의 특수한 양상을 담고 있는 소설이며, 「내 복에 산다」는 그 설화적 원형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는데,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두어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따로 논증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투고일 19.10.06

심사완료일 19.11.04

게재확정일 19.11.07

떠돌았지만 다르고, 동굴에 들어가기 전과 동굴에서 나온 뒤의 짜리투스트라가 같지만 다른 것은, 심청의 경우와 유비 관계가 된다.

38) 권위적인 아버지와 자기 삶을 탐색하는 딸의 대립, 딸의 분리·탐색·귀환의 구조는 지금까지 통속 서사에서 다채롭게 변주되면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가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혼인하지 않는 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는 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문헌

1. 자료

多佳書鋪 간행, 국립도서관 소장 목판 71장 본 『심청전』(완판, 1916).

翰南書林 간행, 국립도서관 소장 목판 24장 본 『심청전』(경판, 1920).

정하영 주해, 『심청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최동현·최혜진, 『교주본 심청가』, 민속원, 2005.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판소리 다섯 미당』, 뿌리깊은나무, 1989.

국립창극단, 『2019 상반기 국립극장 원창판소리 사설집』, 국립극장, 2019.

朴世堂, 『西溪集』.

李建昌, 『明美堂集』.

2. 논저

김복희, 『심청전의 신화비평적 연구 (2) - 부녀분리를 통한 세속적 효의 극복과 자아실현의 주제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4, 이화어문학회, 1981.

김상훈, 『심청가 '범피중류' 대목의 형성과 갈래 간 교섭 및 작품변모사적 의미』,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김종철, 『<심청가>와 <심청전>의 “장승상부인 대목”의 첨가 양상과 그 역할』,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박인혜, 『전승 <심청가> '장승상부인 대목' 비교 - 박동실 바다·정응민 바다·김연수 바다를 중심으로 -』, 『판소리연구』 45, 판소리학회, 2018.

박일용, 『심청가 강상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8, 판소리학회, 1997.

서미하, 『공주의 기출'형 서사의 형성과 의미』,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4.

설중환, 『고대 소설 여주인공들의 연령: 15세 전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87, 1982.

송화섭, 『심청전 인당수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신호림, 『심청전의 계열과 주제적 변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6.

심우장, 『호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10, 실천민속학회, 2007.

유영대, 『심청전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1.

_____, 『'장승상부인'대목의 첨가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1994.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 바다 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학비교연구』 30, 세계문학비교학회, 2010.

_____, 『심청의 우울증』, 『현대정신분석』 12,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0.

이동희, 『부모화된 아이를 위한 심청가의 문학치료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문학치료연구』 3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회, 2010.

이지영, 『연민과 공감의 서사로 본 심청전』, 『고전문학연구』 52, 한국고전문학회, 2017.

이창재, 『도덕계보학 - 니체의 생리·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 『철학』 64, 한국철학회, 2000.

- 정인모, 『여인발복설화의 소설화 양상 고찰 - 박씨전과 심청전에 대하여 -』, 금구논총 제4집, 동국전문대학, 1996.
- 정하영, 『심청전의 제재적 근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3.
-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 - 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 최선의, 『뽕슈킨을 통해 보는 눈먼 아버지와 딸의 관계』, 『러시아문학연구논문집』 8월0호, 한국러시아학회, 2000.
-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 _____, 『심청전 의 배경이 된 곳』, 『반교어문연구』 11, 반교어문학회, 2000.
- 니 체, 『도덕의 계보』, 김정현 역, 책세상, 2002.
- 클라리사P.에스테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손영미 역, 고려원, 1994.
- C.G.웅 · 한국웅연구원, 『웅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2006.
- Maureen Murdock, 『영웅의 딸』, 신광인 역, 청동거울, 1999.
- HANS-JÖRG UTHER, 『The Types of International Folktales - A Classification and Bibliography I』, Helsinki : Suomalainen Tiedeakatemia, 2011.

Father-Daughter Relation and Narrative Structure of 『Sim Cheong's Tale』

Lee, Seung-su* · Kim, Yong-sun**

This paper presented one of viewpoint for reading the tale 『Sim Cheong's Tale』 by analyzing the systematic correlation between father-daughter relation and the narrative structure. The characteristic of Sim Cheong which is known the most widely and impressively in the world is the devoted daughter'. 'Devoted Daughter Sim Cheong' is a kind of idiomatic words in the Korean literature. The viewpoint considering the filial duty as the main theme of 『Sim Cheong's Tale』 has been the main stream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Such awareness was fixed as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and so interrupted experimental and innovative reading. In consideration of the origin of 『Sim Cheong's Tale』 tracing back to the long times ago and its extensive manifestation,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filial conduct moral is the trace and expression of a specific period thickly overlaid on the literal works. This study focuses on the narrative itself of Sim Cheong's Tale putting aside the viewpoint that emphasizes the historic fact and the ethical attitude of the story, and tried to analyze the text of the story from the viewpoint that form speaks all about itself and all descriptions have their implications. As a result two factors were revealed. First, 『Sim Cheong's Tale』 depicts concretely the psychological pattern between father and daughter and its stream that is the process of 'substitution of mother by daughter → attachment of father and daughter → separation of father from daughter → exploration of spouse by daughter, marriage → father's blindness,

* Professor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 Completed doctoral course 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departure → daughter's return and father's gaining eyesight. Second, the development method of relation between father and daughter is tightly organized in the structure of the narrative, creating a specific effect of esthetics. Putting the focus of reading comprehension on Sim Cheong, 『Sim Cheong's Tale』 is a story about a daughter who tries to be independent by departing from the attachment to her father. On the other hand, looking into the conclusive structure of the story that reflects the separation from father with a condition for marriage (or ending in marriage) and Sim Cheong's return to her father, the possibility that 『Sim Cheong's Tale』 is a product of an era that maintained the man-centered marriage culture was left in question. Putting the focus of reading comprehension on Sim Hak-gyu, 『Sim Cheong's Tale』 is a story about a father whose attachment moves from his wife to his daughter from her birth, sticking to his daughter,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chaos with the shock from daughter's separation and marriage and ultimately awakening from the blind fantasy about his daughter. A hypothesis that this story has been relationship with the proverb 『People live according to their fortune』 was presented in this paper.

Keywords : Father-Daughter Attachment, Father-Daughter Separation, Mother-Daughter Substitution, Mother's Will & Articles Left, Psychological Shadow of a Father, Daughter's Search for Mother, Father's Gaining Eyesight